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 누가복음 10장 30-37절

Tag: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10:30-37)

특히 요즘, 특히 서울에서는 이웃을 정의하기가 매우 난감하다.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유재석같이 에너지 충만한 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힘에 겨운 일이기도 하지만, 실례가 되기도 한다.

나는 연예인을 만나면 부러 모른척을 해 준다. 편안하게 보통 사람 처럼 살아보도록 배려한다.

요즘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단도 많고, 장사꾼도 많고, 스캠도 많아서 개인주의가 발달하였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개인주의를 삭막하다고 표현하지 말자. 이기주의도 나쁘게만 보지 말아야 한다. 나쁜 것도 있겠지만 사람 나름이다. 그가 자신에게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일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요즘은 눈치 보느라 개인적인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세상에는 무조건 따지고 비판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의 발단은 제일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가 대답이었다.

그런데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냐? 고 되물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질문한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너는 강도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로 끝을 맺는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겨우 그 답이 누구 누구가 내 이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직접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행위의 숙제로 답을 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기 힘든 사람인가를 계시하셨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율법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율법이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록 한다. 왜냐면 율법을 핑계 대며 선행을 멀리한다. 이들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성경 읽느라 바빠서 선행을 베풀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서 선행을 베풀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셨다. 매우 부적절한 설정이다.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베풀는 진정한 이웃으로 등장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선행을 베풀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결코 이웃이라고 할 수 없는 자들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프레임 설정이다. 예수님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을 사용하셨다. 씨름으로 치자면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한 셈이다.

결국 율법사가 질문을 했지만, 답도 하게 되었는데 마치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드는 듯한 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 말씀하셨다. 너도 똑같다. 네가 바로 이웃이 되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이웃 이겠니,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네 이웃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말장난 같이 들리고,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더 알뜰하게 살고, 더 힘겨운 일을 하고, 더 땀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가?

식구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베풀 것을 요구하셨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다. 왜 하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열에 아홉은 내가 원하는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나 하나 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대충 베풀지 말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베풀자.

<찬양예배>

제목 : 언론의 기능 II      성경:

Tag:

의혹이 아닌 사실을 전하는 기능. 기본기능.

그러나 언론이 매스 미디어가 되면서 정치와 경제의 핵심 기능을 감당하게 됨.

언론이 민심을 취재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향방을 미리 정하고 민심을 특정인이 의도하는 쪽으로 유인해 가는 역할까지 하게 됨.

광고는 드러내 놓고 민심을 흔드는 기법.

뉴스에 광고 기법이 등장하기 시작함. 특히 한국인은 정서적인 민족. 그래서 뉴스 자체가 3류 드라마틱 함. 최근들어 심해짐. 정서가 가미되지 않는 뉴스는 정정보도. 사과방송.

‘터널’ 패러디 개콘에서 방송사 앵커가 과도한 설정을 요구함. 그래야 시청율이 오르고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결국 시청율 전쟁.

똑 같은 사실도 긍정적 보도와 부정적 보도가 있다.

프레임 전쟁(지면 배치, 보도 시간, 제목, 사진 사용, 기사 분량). 뉴스를 뉴스로 덮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하느냐. 그 이슈가 식상해질만하면 재빨리 또 다른 프레임을 사용함.

-그렇게 중요했던 사건이 흐지브지 며칠이 지나면 아무도 관심 없어함. (냄비근성이라는 말까지 등장)

미디어의 질풍노도

-신문, 라디오, TV (어용; 전두환 때 극치)

-조중동의 변화 (민주당 시절)

-미디어 오늘의 등장, 언론에 대한 감시 역할

-종편의 등장으로 뉴스의 3류화가 가속화됨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네이버 뉴스가 주도권을 쥐고 종이 신문은 퇴보함

-sns의 등장. 카카오톡, facebook, 트위터 등 걸잡을 수 없는 뉴스의 홍수 시대가 됨. (지상파의 위력 사라짐)

-결국 댓글 전쟁으로 이어짐.

-댓글 부대 등장. 잠깐은 신선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도 떨어짐. 어디가나 경제원리, 정치논리가 지배구조가 되어 버림.

-사실 보도가 아닌 카더라 통신의 대 유행. 홍가혜 인격살인.

-모든 신문의 의혹 보도

-결국 과학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됨. (황우석부터, 천안함, 광우병까지)

-인터넷TV -심지어 아프리카 TV;김어준 파파이스, JBC까(유튜브), 도봉구 망치부인,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정규재TV,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은 “피폐한 경쟁구조 속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쳐준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고 어디까지 양해될 수 있는 것인지, 지난 20년 동안의 고민으로도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한손엔 성경, 한손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는 성경에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는

신문에 있다.(칼 바르트)

-절대 결론을 내리지 말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잊지 말고, 잃지 말라.